아·태 지역 표준화기구의 정보통신표준화 정책 고찰

김영태* · 박기식* · 박종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Policy of Asia-Pacific Reg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Young-Tae Kim* · Ki-Shik Park* · Jong-Bong Park*
* ETRI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mail : ytkim@pec.etri.re.kr, kipark@pec.etri.re.kr, jbpark1@pec.etri.re.kr

요 약

WTO 체제 출범 이후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복잡한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바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단순한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여, 각국은 정보통신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국가와 공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지역 포럼 또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APT(아·태 전기통신협의체)는 최근 지역 표준화기구의 설립 및 운영 통해 지역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표준화에 의한 지역의 공동 이익 및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가 지향하는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나라의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ABSTRACT

Since the launch of WTO,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market has been accelerated to ensur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various telecommunications or services and this effort is emerging as the realization of an importance of standardization. In addition, in recent years as standardization is recognized not as just a means of ensuring interoperability but as a key strategic means of economic survival in the new trade order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us, each country is working actively to process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through such means as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collective counter-strategies, which are mapped out, in the various regional and global fora and consortia.

In keeping with these trends, Asia-Pacific Telecommunity, which is taking charge of telecommunications affairs of Asia-Pacific region, has been pursuing not only regional common interests but enhancement of its status in the world market by standardization on the basis of intimate collaboration, obtained by establishing reg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named ASTAP(APT Standardization Program). Bearing in mind the consideration outlined abov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policy intended by Asia-Pacific reg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and accordingly, to suggest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ctivities in Asia-Pacific region.

I. 서론

WTO 체제 출범 이후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개방과 자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복잡한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바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단순한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활동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표준화는 치열한 국제 경쟁 환경하에서 세계 시장 선점 및 이를 통한 각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자리 매김 되고 있어, 각국은 정보통신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국가와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지역 포럼 또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아가고 있다. 아.태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아.태 지역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APT(Asia-Pacific Telecommunity : 아.태 전기통신협의체)는 동 지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보통신 환경 제약 사항 즉, 첫째는 지역 국가들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수준, 통신망 환경, 정보통신의 규제 완화 정도(예, 자유화, 민영화, 경쟁 체제 등) 및 산업화의 정도 등이 각기 다르고 다양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공통적 관심 분야를 도출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둘째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과는 달리 동 지역은 정보통신 산업 및 표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재원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매우 빈약하여 정보통신표준화에 대한 각국 별로 상이한 입장이 항시 존재 한다는 것 때문에 지역적 차원의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오고 있다[1].

이에 APT는 보다 체계화된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을 통한 지역의 공동 이익 추구와 세계 시장에서의 지역적 위상 강화 및 동 지역의 당면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2월에 지역 표준화기구로서의 ASTAP(APT Standardization Program : APT 표준화 프로그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가 지향하는 정보통신표준화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나라의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II.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정책방향

1. 일반적 사항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ASTAP)는 1998년 2월 출범된 이래로 그 동안 지역적인 표준화 활동 방향 정립을 위해 1년에 1번씩, 지금까지 2번의 정기 회의(ASTAP Forum)[1]가 개최된 바 있다.

ASTAP Forum에서는 APT의 회원인 정회원, 준회원, 협찬사, 참여회사/기관 등이 회원 자격으로 자율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태 지역의 표준화 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 표준화 활동

1) 제1차 ASTAP Forum은 1998년 2월(태국)에, 제2차 ASTAP Forum은 1999년 6월(싱가포르)에 개최된 바 있으며, 제3차 ASTAP Forum은 금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방향,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로의 공동 기고서 제출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2].

현재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인 ASTAP은 제2차 ASTAP Forum의 결과에 의한 표준화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관련 활동들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2. 목적

ASTAP의 설립 목적은 개략적으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

첫째, 표준화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동 지역의 상.하향식 표준화 활동을 조화롭게 추진하며,

셋째, 회원 국가간의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넷째, 표준화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의견 교환 등과 같은 표준화 협력 활동을 통한 국제 표준화활동에서의 지역적 입지를 강화하며,

다섯째, 동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 등이다.

3. 조직 구성

ASTAP은 (그림 1)과 같이 멀티미디어, 시스템, 무선, 조직 및 작업방법 등과 같은 4개의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과 그 산하에 11개의 전문가그룹(Expert Group), 그리고 ASTAP의 표준화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담당을 하는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로 구성되어 있다[4].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TAP의 조직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의장은 호주 ACA의 Dr.B.Horton이 맡고 있으며, 4명의 부의장 중 멀티미디어 조정그룹은 우리 나라의 진병문 박사(ETRI)가, 각 전문가그룹 중 APII, ATM/xDSL 등 5개 전문가그룹에서 Rapporteur 또는 Co-Rapporteur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ITU-T, ITU-R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아태 지역 출신이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이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중 우리 나라에서는 ITU-T TSAG(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의 부의장인 박기식 박사(ETRI)와 전 APT SG 의장인 강민호 박사(ICU)가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4. 표준화 정책방향

ASTAP에 의한 표준화 활동은 <표 1> - <표 3>과 같이 각 조정그룹 산하의 11개 전문가그룹별로 정립[2]되어 있는 표준화 활동 계획과 활동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일반적 표준화 정책방향을 근거로 하고 있다[4].

첫째, ASTAP의 표준화 활동은 기존 APT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둘째, 새로운 전문가그룹의 설립은 ASTAP 의장, 부의장 및 APT 사무총장간의 협의에 의해서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기존에는 정기적인 포럼에서만 설립하도록 했음),

셋째, 전문가그룹의 회의 개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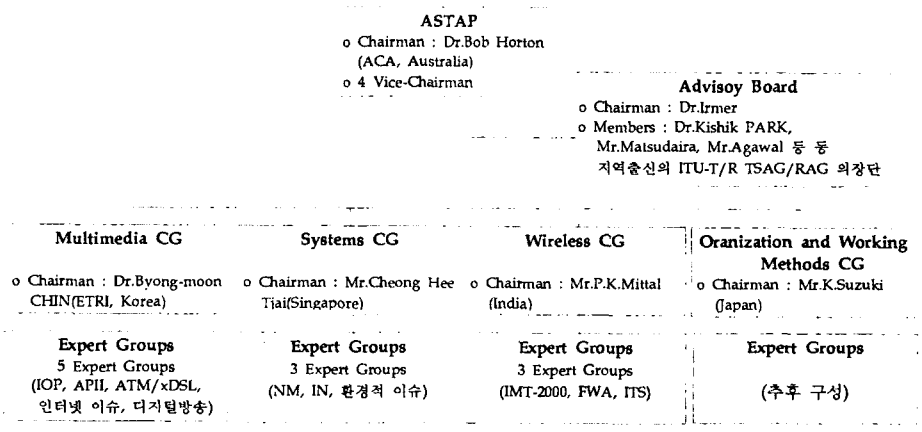
넷째, ASTAP의 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하여 아태 지역 출신의 ITU-R SG 의장 및 ITU RAG 의장단도 포함하여 동 지역의 무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에는 ITU-T 분야의 의장단만 위원으로 활동),

다섯째, ITU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의 제출 기고서 또는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회원 국가간(정회원, 준회원, 협찬사, 참여회사/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마지막으로, ASTAP Forum의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하기 위한 동 지역의 표준화 관련 기구(예, 한국의 TTA, 일본의 ARIB, TTC, 호주의 ACIF)의 참석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이들 기구들이 ASTAP Forum 회의에의 참석이 보다 자유롭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5. 각 전문가그룹별 Rapporteur 구성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STAP은 <표 4>와 같이 11개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태 지역 전문가 15명이 Rapporteur 또는 Co-Rapporteur를 맡고 있다. 우리 나라는 IMT-2000 전문가그룹에서 위규진 박사(RRL)가 Co-Rapporteur, IOP 전문가그룹에서 김장경 박사(ETRI)가 Rapporteur, ATM/xDSL 전문가그룹에서 이재진 박사가 Rapporteur, Internet-related Topic 전문가그룹에서 정유현 박사(ETRI)가 Co-Rapporteur, Asia-pacific AII backbone 전문가그룹에서 이준원 교수(안동대)가 Rapporteur 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6월, 제2차 ASTAP Forum 회의에서 신설된 '조직 및 작업방법' 조정그룹내의 전문가그룹은 현재까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1) 아·태 지역표준화기구(ASTAP)의 조직 구성도

2) 현재 각 조정그룹 산하의 조정그룹별 활동 계획 및 활동 방향은 작년 6월의 싱가포르 회의(제2차 ASTAP Forum)에서 결정된 사항임.

<표 1> 시스템 조정그룹의 표준화 활동 방향

산하 전문가그룹	표준화 활동 계획	활동 지침
NM (*Network Management*) Expert Group	o 'Network management in Asia Pacific region Status Requirements and trends' 기고서를 1999년 8월까지 완료 및 10월까지 각 회원국들에 의견수렴 후 APT 기고서로 ITU에 제출키로 함.	o 2000년 1월까지 M.3010/3, M.3100, M.3200, M.3400 관련 기술 기고서를 ITU에 제출키로 함. o 2000년 4월까지 ITU에 제출할 또 다른 기술기고서를 준비하기로 함.
IN(Intelligent Network) Expert Group	o 2개의 기고서 준비 - Guidelines for Introduction of IN - IN CS-1 Operations	o 2개의 기고서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1999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함. o IN 분야의 표준화 관련 특정 이슈 및 정보 교환 사항 유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기로 함.
Environmental Issues Expert Group	o 1개의 기고서 준비 - Environmental testing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o 본 기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각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함. o 본 활동 이후의 전문가그룹은 ASTAP에서 폐지하기로 함.

<표 2> 무선 조정그룹의 표준화 활동 방향

산하 전문가그룹	표준화 활동 계획	활동 지침
IMT-2000 Expert Group	o 1999.6. 1999.12. : ITU에서의 RTT 표준화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o 2000.1.- 2000.3. : ITU 및 기타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IMT-2000 RTT 표준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ITU 회의에 제출키로 함. o 2000.4. - 2000.6. : 본 전문가 그룹의 활동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키로 함.	o 현행 활동 지침을 2000년 6월까지 준용하기로 함. - 하향식 표준화활동으로 ITU, 3GPP 등과 같은 표준화기구에서 작성되는 결과물을 연구 및 검토. - 상향식 표준화활동으로 *ITU* 등에 관련 기고서(의견 등 포함) 제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Expert Group	o 3개의 기고서 준비 - Transpor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TICS) : *Functionalities* - TICS : Low power short-range vehicular radar equipment at 60GHz and 76GHz - TICS :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at 5.8GHz	o 3개의 기고서 중 'TICS :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at 5.8GHz '을 2000년 2월까지 완료하여 ITU-R에 제출키로 함. o APT SG 2.1의 ITS 관련 연구활동과 공동 작업을 위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FWA(Fixed Wireless Access) Expert Group	o 1999.7. - 1999.9. : 기고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o 1999.10. - 1999.12. : ITU 기고서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반영키로 함. o 2000.1. - 2000.3. : 기고서 초안을 작성키로 함. o 2000.4. - 2000.6. : 기고서를 마무리 하기 위한 본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 및 차기 ASTAP 보고 준비를 하기로 함.	o 현재의 FWA 시스템은 아날로그 서비스용이나 추후에는 미래의 시스템을 위해 중간 또는 광대역 무선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기로 함. o ITU에의 서비스 요구조건 및 주파수 조화 관련 표준은 ASTAP FWA 전문가그룹 활동의 결과로 제안 하기로 함.

<표 3> 멀티미디어 조정그룹의 표준화 활동 방향

산하 전문가그룹	표준화 활동 계획	활동 지침
IOP Expert Group	o1999.7. - 1999.12. : 'IOP testing methodology and framework' 기고서를 완료키로 함. o 2000.1. - 2000.3. : ITU-T에 관련 기고서를 제출키로 함.	o 'IOP testing methodology and framework' 기고서를 작성하여 ITU-T SG 7에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 지침을 수정함.
Internet-related Topics Expert Group	o 1999.7. - 1999.10. : 각 회원국에게 본 이슈와 관련한 설문서를 배포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로 함. o 1999.11. : 설문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o 1999.12. : 선정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	o 아태 지역에서의 인터넷 관련 표준화 활동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로 함.
ATM/*xDSL Expert* Group	o 1999.7. - 1999.9. : 지역 표준(안)에 관한 초안의 배포 및 등 분야에 대한 ITU-T 등 표준화기구의 현황을 검토하기로 함. o 1999.10. - 1999.12. : 제안된 표준(안) 검토 및 지역 표준(안)을 준비하기로 함. o 2000.1. - 2000.3. : 멀티미디어 조정그룹에 지역 표준(안)을 제안하기로 함. o 2000.4. - 2000.6. : 다른 xDSL용 표준화 계획을 준비하기로 함.	o xDSL(특히, ADSL)에 관한 기술 분야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함.
Asia-pacific AII Backbone Expert Group	o 1999.7. - 1999.10. : 본 전문가 그룹의 구성 체계 마련 및 재조정하기로 함. o 1999.11. - 2000.5. : APII Backbone 활동 관련 기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o APII Backbone Area 관련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그룹의 작업 계획도 변경하기로 함.
Digital Broadcasting Expert Group	o 1999.7. - 1999.8. : 각 회원국에게 본 이슈와 관련한 설문서를 배포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로 함. o 1999.9. - 1999.12. : 본 전문가 그룹의 중간 보고를 멀티미디어 조정그룹에 하기로 함. o 2000.1. : 멀티미디어 조정그룹 차원에서 검토 및 향후 활동계획을 수정하기로 함.	o 기존 활동 영역에서 '데이터 방송 서비스'와 'Interactive TV' 관련 사항을 활동 영역에 포함시키기로 함. o 본 전문가그룹의 활동 결과서를 ABU에도 제출키로 함.

<표 4> 각 조정그룹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Rapporteur 현황 (2000.4. 현재)

표준화활동 분야	세부 표준화활동 분야 (Expert Group)	Rapporteur
Systems Coordination Group	o Network Management	- Mr.P.Ganesh(인도)/ Dr.C.Yeh(일본)
	o Intelligent Network	-Mr.I.S.Sastry(인도)
	o Environmental Issues	-Mr.N.C.Mishra(인도)
Wireless Coordination Group	o IMT-2000	-Mr.A.Sasaki(일본)/ Dr.K.J.WEE(한국)
	o FWA	-Mr.Y.Shindo(일본)
	o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Mr.S.Oyama(일본)
Multimedia Coordination Group	o IOP(Interoperability)	-Dr.J.K.KIM(한국)
	o ATM/xDSL	-Dr.J.J.LEE(한국)
	o Internet-related Topics	-Dr.Hui-Lan Lu(일본)/ Dr.Y.H.JEONG(한국)/ Dr.S.Nakagawa(일본)
	o Asia-pacific All backbone	-Dr.J.W.LEE(한국)
	o Digital Broadcasting	-Mr.H.Otsuka(일본)
Organization and Working Methods Coordination Group	o 미정	- 미정

6. ITU 등에의 공동 기고서 제출 절차

ASTAP은 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의 공동 이익 추구 및 세계 시장에서의 지역 위상 강화를 위해, 각 전문가그룹 등을 통한 표준화 활동의 결과로서 아.태 지역 공동 기고서를 ITU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 보다 체계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방향을 (그림 2)와 같이 정립하고 있다. (그림 2)의 ITU 등에의 공동 기고서 제출 절차의 핵심적 내용은 공동 기고서 작성 당사자인 전문가그룹과 회원국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의 전문가그룹에 의한 ITU 등에의 공동 기고서 제출 절차의 주요 골자는 3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그룹은 해당 분야의 기고서 초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고서 초안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여 회원들의 의견 합의로 작성해야 하며, 둘째, 기고서에는 모든 참여 회원들의 공동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ITU 회원 및 부문(sector) 회원인 APT 회원국의 명칭이 기고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셋째, APT 사무국은 해당 전문가그룹의 Rapporteur의 기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Rapporteur의 작업을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III. 정책적 제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인 ASTAP의 표준화 정책은 보다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생존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태 지역이 갖는 국가간의 이질성 및 다양성 문제, 제한된 자원 문제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공통적 관심 분야를 추출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ASTAP은 동 지역 국가의 통신 환경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들이 표준화 정책을 구사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5-6].

첫째, 공동 표준화 대상 분야 및 항목이 도출되어야 한다. 아.태 지역 국가들이 갖는 다양한 지역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표준화 대상 분야의 도출과 표준화를 추진해 나아갈 대상의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이를 ASTAP의 전문가그룹 세부 항목으로 반영하여 관련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ASTAP의 공동 표준화 대상 분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화 작업방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지난 제2차 ASTAP Forum에서 다소 논의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ASTAP의 각 전문가그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향식 및 하향식 표준화활동의 작업 방법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역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화활동에 대한 중복된 노력을 최소화하여 보다 알찬 표준화활동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embership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ASTAP은 11개 전문가그룹에 실질적으로참여하여 표준화활동을 하고 있는 Membership이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이는 어떤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데 있어서 동 지역 회원 국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1개의 전문가그룹에 대한 총 17명의 Rapporteur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인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고, 국가별로 그 비율을 살펴 보면, 일본은 7명(47%), 한국은 5명(33%), 인도는 3명(20%) 순이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조화로운 표준화활동을 위해서는 각 국가 별로의 균형적인 전문가 활동 및 참여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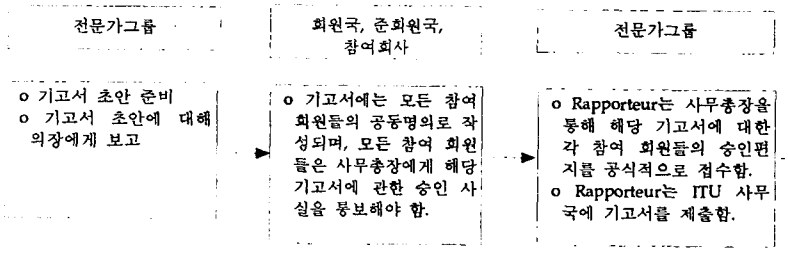
넷째, 전자적 표준화 활동 강화이다. ASTAP은 동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광범위성의 특수성에 따라 e-mail 등 전자적인 통신 수단에 의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최근 APT내에 ASTAP 홈페이지인 astap@aptsec.org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보다 신속한 정보 교환과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적 표준화 활동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론

아.태 지역 표준화기구인 ASTAP은 1998년 2월에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 표준화 활동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꾀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는 1999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STAP Forum을 계기로 ASTAP이 지역적 입지가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서의 제2차 ASTAP Forum은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지역 표준화 활동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에 따라 표준화 활동을 보다 역동적으로 할 것을 결의한 중요한 회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ASTAP의 표준화 정책 방향은 제2차 ASTAP Forum의 주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ASTAP의 표준화 정책 방향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표준화 활동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결과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국가간의 협력 증진 강화 및 산업체(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ASTAP을 통한 지역 표준화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산업체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내 산업체의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적시에 제시하고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우리 나라는 국제 표준화활동의 전초 작업으로서 동 지역에서의 표준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의 필요한 분야



(그림 2) ITU 등에의 공동 기고서 제출 절차

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표준화에 대한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김영태, 박기식, "아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표준화 활동 추진전략" 주간기술동향 제896호, pp.16 25, 1999.5.

[2] APT, Proceeding of 22nd Management Committee, 23-27 November. 1998.

[3] APT, Draft Proceeding of Asia-pacific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Forum, 12-13 February, 1998.

[4] APT, Proceeding of ASTAP Forum, 23-25 June 1999.

[5] Dr.K.S.PARK, "Strategic Approaches for Present and Future Works of MMCG", ASTAP MMCG Meeting, 25-26 February 1999.

[6] Dr.Ki-Shik PARK,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ASTAP", 2nd ASTAP Forum, June 1999.